

장결핵의 치료기간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중간 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간연구소

신경한*, 김주성, 이국래, 이동호, 정현채, 송인성, 김정룡

목적: 장결핵의 치료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저자들은 장결핵 환자에서 항결핵제의 15개월 투여와 9개월 단기투여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3년 10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장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여 9개월, 또는 15개월간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장결핵의 진단은 1) 조직의 도말,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증명된 경우, 2) 조직검사에서 진락성 괴사를 보이는 경우, 3) 환자의 임상상과 방사선학적, 내시경적 검사소견, 조직검사 등에서 장결핵이 의심되며 항결핵제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등으로 하였다. 9개월 치료군의 경우 isoniazid와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를 9개월간 투여하였으며 15개월 치료군은 isoniazid와 rifampin, ethambutol은 15개월간, pyrazinamide는 처음 9개월간 투여하였다. 치료시작 2개월 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치료종료 시와 치료종료 6개월, 1년, 2년, 3년 후에 각각 대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성적: 연구기간 중 총 22명의 환자가 항결핵제 투여를 마쳤으며 9개월 치료군이 11명, 15개월 치료군이 11명이었다. 두 군간에 연령(34 ± 19 vs 35 ± 17 세), 남녀비(4/7 vs 3/8), 치료종료 후 평균 추적기간(14 ± 12 vs 16 ± 9 개월) 등의 차이는 없었다. 환자의 증상, 빈혈 유무, 폐결핵 동반 여부, 장결핵의 침범범위, 조직검사 소견 등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결핵제 투여 중 두 군에서 각각 2예의 합병증이 있었다. 9개월 치료군의 경우 1명에서 무증상의 요산 증가가 있었으며 1명의 환자는 간효소치의 증가로 인해 pyrazinamide대신 streptomycin을 투여하였다. 15개월 치료군의 경우 피부발진과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 1명씩 있었으나 대증적 요법 후 호전되었다. 항결핵제 투여 후 대상환자 모두에서 장결핵은 치유되었다. 치료종료 후 평균 15개월의 추적기간 중 두 군 모두에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내시경적,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재발의 소견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결론: 장결핵의 치료는 9개월의 단기로 충분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좀더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겠다.

처음 진단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골밀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해부병리학교실*

이상호*, 김효종 · 장영운 · 김덕운 · 박용구* · 동석호 · 김병호 · 이정일 · 장 린

배경: 서구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골밀도 감소는 비교적 흔하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기전인 진단 초기부터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인종과 사회경제학적 환경이 다른 한국인에서는 그 빈도나 병태생리가 연구된 적이 없었다.

목적: 국내에서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진단초기의 골밀도와생화학적 지표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8세이하, 폐경이후 여성, 스테로이드 혹은 성호르몬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 등을 제외한 처음 진단 받은 크론씨병 환자 8예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 1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골밀도는 이중에너지 X-선 촬영술을 이용하여 요추부와 대퇴경부에서 측정하였다. 혈장 Osteocalcin, 25(OH)-vitamin D와 1,25(OH)₂-vitamin D, 부갑상선 호르몬, 소변내 유리 Deoxypyridinoline 등을 포함한 생화학적 지표들을 측정하여 골밀도와 비교하였다. 또 크론씨병 1예에서 골생검을 시행하였다.

결과: 요추부의 골밀도의 감소(Z score < -1)는 40%에서 관찰되었다(8/20: 크론씨병 3예, 궤양성 대장염 5예). 크론씨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군 사이에 평균 요추부 골밀도에 차이는 없었다(-0.78 ± 0.53 대 -0.88 ± 0.53). 더 나쁜 영양상태를 보인 크론씨병 환자군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군에 비해 혈장 25(OH)-vitamin D가 감소되어 있었고 소변 Deoxypyridinoline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골밀도의 정도와 관련된 생화학적 지표는 없었다. 지주골이 풍부한 요추부의 골밀도는 대퇴경부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0.81 ± 0.52 대 0.19 ± 0.81 , $p < 0.05$). 요추부와 대퇴경부의 골밀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크론씨병 1예에서 시행된 골조직검사상 골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진단초기 지주골 골밀도의 감소는 한국인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빈번하다. 국내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의 빈도가 증가하며 빈번한 스테로이드제제의 사용을 고려할 때 진단초기부터 골밀도의 감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